



◇팜나무대장경을 소재로 한 설치미술 운영석씨 '팜나무대장경 읽기'.

# “문화유산도 재창조 소재”

## 우리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

성곡미술관서 12월 28일까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우리 문화유산을 오늘의 시각으로 재조명해 생명감을 부여한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다. 성곡미술관(관장 박문순)이 개관 2주년을 맞아 12월 28일까지 여는 '우리 문화유산, 오늘의 시각전'이 그것.

이번 전시는 불국사와 석굴암, 해인사 팔만대장경, 종묘 등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거나 창경궁, 수원화성 등 지정예정인 우리 문화유산을 20명의 작가가 6개월간 회화(9), 사진(5), 조각·설치(6) 등 다양한 작업을 통해 이룬 결실이다. 본래의 의미를 살리면서도 단순

## 작가 20명이 재창조한 석굴암 대장경 종묘... 보는 이에겐 사고의 확산

한 소재주의에서 벗어나 조형적, 형식적 변화와 함께 새로운 시각적 해석의 시도가 두드러진다.

강운구씨는 '활영금지' 팻말과 석굴암 본존을 각기 다른 초점으로 대비시킨 사진영상을 통해 역사의 질곡을 관통해온 본존불의 의미를 현대인에게 묻고 있다. 임영선씨는 석굴암 본존불과 심대제자를 설치, 생로병사의 의미와 자비의 세계를 환자와 의사의 관계로 설정하는 상상력을

보여준다. 김동욱씨는 전통적인 채색과 오방색을 사용, 화엄 불국세계를 조형화했고, 김영현씨는 불국사와 석굴암이 현대인에게 주는 의미를 설치미술로 표현했다.

전광영씨는 대장경 제작과정에 담긴 고려인들의 혼과 정성을 치열한 종이 수공업 작업으로 재현했다. 운영석씨는 팔만대장경을 악보로 치환시켜 시공을 초월한 음의 세계와 불심을 연결한 설치작품을, 황규태씨는 율화와 영결회귀를 우주와 자연의 이미지에 결합시킨 사진작품을 각각 선보인다. 최진욱씨는 한 아이가 팔만대장경이 들어있는 수나라장을 지나는 그림을 통해 진리의 세계로 나아가는 구도자를 떠올리게 한다.

윤기석 기자

## 문화 소식

### '문화재 논저 색인' 발간

국립중앙도서관 1만2천 항목 정리

국립중앙도서관(관장 정기영)이 문화재 관련 자료를 담은 (학술논저총합색인(문화재편))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1945년부터 1996년까지 국내에서 간행된 문화재분야 저작물을 수록한 색인집으로 일반도서, 학위논문,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논문 등 1만2천여 항목을 담고 있다. 항목은 △문화재 일반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자료 △문화재 보존관리 등으로 나눠 서명으로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저자명 색인도 포함하고 있다. 문화재관련 색인집으로는 처음 발간된 이 자료집은 우리문화재 연구 및 보급에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화작 '향식공간' 박문순

### 한국화가 4인4색전

28일까지 인사동 갤러리 상

중견한국화가 4명이 인사동 갤러리 상(02-730-0030)에서 28일까지 한국화 군집개인전을 갖는다. 초대작가는 임효(42) 이정신(52) 김준옥(51) 이성현(37)씨. 임효씨는 '향식공간'이라는 제목으로 탁종이 위에 직접 부조작업을 한 독특한 수묵화를 선보이고 이정신씨는 '낙산사 가는길' 등 4세절에 걸친 실경산수 작품을 선보인다.

## 경주박물관회등 '문화재 전문가양성 강좌' 열기

# 전통문화 사랑 '내손으로'

일반교양수준을 넘어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있는 실무자들에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문화재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강좌를 수료한 사람들은 시민운동단체의 문화재지킴이로서의 구실을 다할 뿐만 아니라 문화재관련 단체의 전문인력으로 자리잡고 있다.

현재 실시중이거나 계획되고 있는 강좌는 '경주박물관대학', '영남대박물관대학', '한국보호재단 문화재수리기술강좌', '동국대 문화예술평가원 지도자과정', '전남대 문화재전문가 양성과정' 등.

경주박물관회(0561-772-5173)는 '경주박물관대학'에 연구과정을 마련, 문화강좌를 이수한 수강생들에게 심층적인 연구단위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영남대박물관대학(053-810-3622)'도 매년 주제를 달리하며 지속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사)한국문화재보호재단(02-266-6938)의 '문화재 수리기술강좌'는 문화재 보수와 단청전문가 양성을 위한 강좌. 86년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전통문화강좌'와는 달리 문화재보수라는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다.

영남대박물관대학을 7년동안 수강한 것을 계기로 '대구문화재지킴이 시민모임'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김계숙씨는 "문화재를 관리보호하고 시민들에게 애호정신과 지식을 보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며 "박물관대학의 연륜이 쌓인다면 박물관 등을 구성, 시민문화운동의 구심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대 호남문화재연구소(062-512-6711)는 내년부터 '문화재전문가 양성과정'을 마련, 초·중등교사와 문화재관련 공무원, 문화당사와 역사기행의 인솔자, 성보를 직접 소장관리하고 있는 스님 등 문화재관련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의도 실무적인 내용을 보완, 문화재관리보호법령과 운용 불교·유형문화재 공예 고고유적조사 및 보존과학 등 이론교육과 견학·실습(탐방) 등 현장학습으로 이뤄진다.

동국대 문화예술평가원(02-260-3607)은 95년 '문화예술평가원'을 개설, 문화예술평가원 공무원과 예술인, 스님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있다. (석)

# “여래의 공덕 꽃으로 찬탄”

연화꽃이연합회 작품집 '시방에 꽃비 내리리'

연화꽃이연합회(이사장 보명스님)는 불교꽃이작품집 <시방에 꽃비 내리리>를 발간하고 18일 서울 신사동 리베라호텔에서 출판기념회 및 이를 기념한 생활한복 부케쇼를 열었다.

20년에 걸쳐 예술적인 불전공화(佛前供花)를 연구해 온 보명스님이 그동안의 결실을 모아 엮은 <시방에 꽃비 내리리>는 △불전공화의 의미 △불교꽃이의 역사 △불전공화 △부처님오신날 화환예식 49개 등 각 불교의식의 꽃이 다양한 모습 등을 소개한 작품집.

특히 불전공화의 이론적 정립을 위해 삼국시대 신라 고려 조선 등 각 시대별 불화 또는 조각에서 볼 수 있는 불교꽃에 대한 특성을 간추렸고 각 의식의 꽃이 어땠어야 하는지 자세히 소개해 놓았다. 그리고 부처님 오신날 출가절 열반절 우란분제 등 경축일때의 꽃이와 화환예식 49개 영산재 천도제 예수제 및 일반제일, 그리고 생활꽃이로써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선물 등의 꽃



◇보명스님작 '부처님오신날'

꽃이도 잘 팔라로 선보이고 있다. 보명스님은 "예로부터 불교와 꽃은 아주 밀접했다"며 "이 작품집이 더욱 발전된 불전공화를 위한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함께 최초로 열린 전통 개량한복, 드레스와 함께 어우러진 부케쇼에는 연꽃 108송이로 만든 부케 등 총 50여종의 꽃부케가 선보여 갈채를 받았다. (숙)

## 불심시심 (108)

유불은 하나의 흐름

株筍座再發樓 지팡이 멈추고 불자 날리며 다시 오른 누대 (주공회주재등류)  
前後園林正晚秋 앞 뒤 동산 숲들은 바로 늦가을 (전후원림정만추)  
雁自北翔黃葉盡 기러기 북에서 날자 단풍도 지고 (안자북상황엽진)  
風從西起碧雲收 바람은 서쪽에서 일어 파란 구름 걷히다 (풍중서기벽운수)  
主翁獨坐多閑寂 주인 홀로 앉아 한적함 많더니 (주옹독좌다한적)  
陶老時來共飯遊 이웃 노인 때로 찾아와 함께 노닐조 (인로시래공완유)  
一潭清澗消水夕 함께한 자리 청담으로 긴 밤을 새우니 (일청정담소영석)  
方知佛釋是同流 이제 알겠다, 유가 불가 한가지 흐름임을. (방지유석시동류)

위 시도 대원대사의 시이다. '연수노서생에게 바친(奉呈 蓮水老生)' 시다. 유가의 높은 서생과 마주하고 지은 시이다. 가는 길은 서로 다르지만 의기는 닮아 있는 두 사람의 우정이 배어난다.

첫 구에서 지팡이를 멈추고 불자인 주미(주尾)를 날린다 하였다. 재미있는 대칭이라 하겠다. 지팡이가 속세 노인의 호신구라면 불자는 스님의 위엄의 상징이던 은연 중에 속세를 떠나 선계에 든다는 암시적 수사라 한다면 지나친 해석일까. 어쨌든 지팡이를 멈추고 불자를 날리며 오른 누대이다. 누대를 중심으로 좌우 좌우의 숲은 가을 단풍 일색이 되었다. 여기서 바로(正)라는 표현의 암시가 묘하다. 다음의 함께(共)와 한가지(同)로 맞물려 유석동류(儒釋同流)라는 결론을 자연스러이 유도하려는 복선이었던가, 작자의 치밀한 시적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음미하게 한다.

다음의 기러기가 북에서 온 다름, 바람이 일어 구름이 걷힌다는 것은 가을의 서경이기는 하지만, 다정한 손님을 맞이한다는 이 시의 작자적 처지로서는 오히려 반가운 손님의 오심을 비유한 것이라 하여도 무방하겠다. 기러기의 날을 이 바로 손님의 오심이고, 바람 일어 구름 걷힘이 바로 손님의 기상이라 한다면 이 시의 탁월성이 오히려 돋보이는 대목이다.

이렇듯 무료한 나의 거처에 반가운 손님이 찾아준 것이다. 주인 늙은이(主翁)와 이웃 노인(隣老)의 만남이다. 이 이질적 대칭의 구조를 함께(共)라는 한 글자로 묶어 놓았다. 그러기에 다음 구의 한 자리(一座)가 자연스러운 것이다. 깊어가는 가을밤을 꼬박 새워도 모자라는 맑은 이야기의 연속이다. 여기에 스님이다 선비의 거리가 있었는가. 진리의 세계에 다른 흐름이 있을 수 있었는가. 이종찬 (동국대 교수)

## “조선초 궁궐서도 불상조성”

최성은교수 '태조~성종시대 조각...' 발표

송유역불정색을 충실히 실천했던 조선 초에도 궁궐안에 장안을 모아 두고 불상을 조성하는 등 왕실위주의 불사가 활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흥미를 끌고 있다.

15일 동국대에서 열린 강좌미술사 학술발표회에서 최성은교수(덕성여대 사학)는 '태조~성종시대 조각의 대외교섭'이란 주제발표에서 "조선시대에 우수한 불상이 조성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며 "명나라와의 빈번한 교류를 통해 다양한 명 조각양식을 수용, 전통적인 고려양식과의 혼합을 통해 조선초기의 조각양식을 형성했다"고 말했다.

최교수에 의하면 <조선왕조실록> 태조~성종의 치세기인 1백여년동안 불상조성기사는 눈에 띄게 많다. 또 조선초기의 불상양식은 명과 마찬가지로 다양하다. 수종사탑에서 발견된 금동불좌상이 고려의 전통양식을 계승, 단정하고 엄숙한 분위기를 보인다면, 원각사10층석탑의 조각은 방형에 가까운 얼굴과 가슴이 흰치 보이도록 둥글게 퍼진 착의법이 명나라 양식과 유사하다.

특히 기림사 건칠불좌상은 △운반하기 쉬운 소형 불상 △의가 국내에서 찾아볼 수 없는 쇼울양식 △명문이 불상제작시기의 처음과 끝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 '98 삼화불교대학 학생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 과	수업연한	모집과정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30%
불교학과	2년	■주간 ■야간 ■통신	· 고등학교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1통 · 본교 소정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합판 사진 5매	· 조계종 승려· 포교사 (타종단 승려, 포교사도 가능)
	4년	■통신		
유아교육과 (유아포교과)	2년	■주간 ■통신		
중국어과	2년	■주간 ■야간		
불교미술 (문화재)과	2년	■주간		
동양화 (禪畫)과	2년	■주간		
신문방송과 (불교보도과)	2년	■주간 ■통신		
동양 풍수과	2년	■야간		

2. 학교연혁

1989.7.3 학교설립공고  
90.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4년제 개교  
90.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8 본교학생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증 취득  
91.3 전문부 주간 야간2년제 개설  
91.8 본교학생46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1.8 교육부인정 고등학교 인수  
92.2 제1회 졸업생 배출  
92.7 국가인정 보육교사 119명 자격취득  
93.3 불교미술과 불교보도(신문방송)과 개설  
93.8 본교학생42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4.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5.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3 전문부 중국어과 개설  
95.8 중국 남경 중의약대학과 본교세점  
95.11 본교학생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6.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11 본교학생36명 조계종 포교사자격 취득  
97.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  
98.2 제 7회 졸업생 배출예정  
98.2 국가인정2급 보육교사자격 21명 취득(예정)위탁교육 수요자  
98.2 동양화(선화), 동양 풍수과 개설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자격증, 불교유아포교사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문화재수리 기술사 자격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4. 원서교부및접수기간

- 원서교부및접수기간: 1997년 12월30일까지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우편당일 소인 유료)

5. 원서교부및문의처

- 본교 교학과 : TEL. 511-2026~8 FAX. 511-1080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로 문의바람 (511-2026-8)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대한불교 조 계 종 삼 화 불 교 대 학

## 쌍계사 승가대학인 모집

쌍계사 승가대학 1997학년도 편입생 및 신입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다 음

- 모집학과 : 사미과(치문과) ..... 00명  
사집과(편입생) ..... 00명  
사교과(편입생) ..... 00명
- 입학자격 : 사미계 수계자, 사미과, 사집과 수료자(편입생),
- 제출서류 : ① 입학원서 ..... 1부  
②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③ 승적사본 ..... 1부  
④ 주민등록등본 ..... 1부  
⑤ 사진(3cm X 4cm) ..... 3매  
⑥ 사미과 수료증(편입생) ..... 1부
- 준비물 : 대가사, 오조가사,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접수후 면접
- 모집기간 : 1997년 11월 17일 ~ 12월 16일
- 문 의 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208번지  
쌍계사 승가대학 ☎ (0595)83-1906, 종무소 83-1901

불기 2541년 10월 1일

대한불교조계종 제 13 구본사 **쌍계사승가대학**

학 장 선 곡 · 강 주 통 광(칠불사 주지)